

'정읍 한우' 19억 투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정란 이식 등 11개 사업
임신 조기 진단 키트로 번식율 ↑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소 지원
대가축 폐사처리 지원 추진도

정읍시가 2026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9억원을 투입해 11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정읍시는 한우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정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한민국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은 한우의 성장 단계와 품질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우량한우 육성 지원 ▲한우 조기 임신 진단키트 지원 ▲한우 사육농가 미네랄블럭 지원 ▲대가축 폐사처리 지원 ▲한우 품질개선 지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지원 ▲한우 혈통 확인 검사 지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등 11개 분야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6450만원을 투입해 우수 수정란 생산과 이식을 돋는 '우량한우 육성 사업'을 시작한다.



정읍지역 축산농가 한우사육 현장.

또 8100만원 규모의 '한우 조기임신 진단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번식 효율을 높여 농가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와 함께 한우의 필수 영양소인 무기질·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미네랄 블럭 지원 사업(2억1000만원)'과 '대가축 폐사처리 지원 사업(7200만원)'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히 '대가축 폐사처리 지원'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해 악취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개량 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량 한우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성이 낮은 개체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사업'과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사업'에 5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혈통이 우수한 암소의 등록과 체형 등을 심사하는 '암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에 2억5200만원,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우 혈통 확인 검사 사업'에 2억700만원을 배정해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도 다진다.

강용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 한우를 제계적으로 개량하고 생산성을 높여 한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정읍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노선 운행 시작

저상 설계에 넓은 이동 공간 갖춰
휠체어 이용자 등 승·하차 편의

고창군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해 노선운행을 시작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고창군은 산림청 고창군수와 대한고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상버스 시승행사를 열고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저상버스 차량은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타운'이다. 휠체어 고정장치와 넓은 이동 공간을 갖춘 것은 물론 설계 자체가 저상이다. 휠체어 이용자와 노인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이 장점이다.

군은 향후에도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덕십 고창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은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첫



산덕십 고창군수가 새로 도입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걸음"이라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친환경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1인 20만원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 지급…예산 절감 등 150억 재원 마련

남원시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기계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근 군 지역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제기된 민생안정 요구를 시가 수용한

결과다. 15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시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부문 89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 135억원의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절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발의와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사랑상품권 올 1000억원 발행

10% 선할인 금액 판매…개인당 월 한도 100만원

정읍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올 한해 총 1000억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발행액이 확정된 정읍사랑상품권은 10%의 선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 최대 보유한도는 200만원이다.

시는 시기별 소비 패턴을 고려해 월별 발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 운영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예산 운용 평가 '우수' 2관왕

도시생활환경 개선 등 우수사례 선정…1억1000만원 인센티브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전환사업 성과 평가'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전환사업 성과 평가는 '제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 보조율 준수, 우수사례 등을 평가했다.

남원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57개 전환 사업에 224억원을 편성, 기준액 대비 과감한 투자 확대와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우수사례로 인정돼 1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 참여 구조 대표성, 주민 참여 수준·권한, 흥보·교육 실적 등 7개 평가 지표를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강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폭넓게 마련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엠즈씨드 지역 농산물 유통 '협력'

커피 브랜드 '폴바셋' 전국 매장에 땅콩·복분자 등 디저트 런칭

고창군이 엠즈씨드(주)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고창군과 엠즈씨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땅콩, 복분자 등을 활용해 디저트 메뉴를 개발한다.

이후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Paul Bassett)'의 전국 146개 매장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고창군과 엠즈씨드(주)는 ▲고창 농산물을 안정적인 공급 지원 및 원불 구매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공동마케팅 ▲기타 지역 상생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폴바셋에서는 고창 땅콩 카페라떼, 고창 고구마 라떼, 고창 복분자 에이드, 고창 고구마 치즈 케이크 등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